



SCREEN

(KOREA) CO., LTD.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MT컴퍼니

26개 해외법인 중 5년연속 판매 1위

1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대표 전익성, www.screen.co.kr)의 MT컴퍼니는 김유석 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그 아래 영업부에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부 근무자 10여명 등 모두 2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년전 신입직원들을 충원한 것을 제외하면 평균 근속년수가 12~3년에 일부 인원은 20년에 가까운 두터운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탄탄한 조직력을 빛낼 수 있는 우수한 재원들로 이뤄져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다. 오랜 경험과 잘 짜이고 단합된 부서 분위기, 우수한 제품으로 이뤄져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결과물을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는 내놓았다. 전세계 26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이니폰스크린의 해외법인들 간의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개인평균 판매실적 1위라는 위업을 세운 것이 바로 그것이며 연속적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전의식과 현장 중심주의로 고객에 감동 선사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의 현장 중심주의는 경쟁사와 확실한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전 직원이 1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실무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S현장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기계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설명 및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실시간으로 일본 본사의 엔지니어와 통화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과 근원적이고 명쾌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MT 컴퍼니 영업부의 김기달 부장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계를 하루만 세워놓아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쇄업계의 특성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현재의 즉응 A/S체제가 나온 것이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현장 위주의 회사철학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폭 넓은 선택 가능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군을 보면 선택의 폭이 무척 넓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CTP시스템인 PlateRite 8800/8600은 명실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멀티채널 방식의 고속노광, 최대 500장까지 적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판공급 장치, 최대4000dpi의 고해상도 지원, 시간당 최대 50판까지 처리하는 작업의 생산성 등으로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디지털인쇄기부문의 트루프레스344는 전통적인 습식 오프셋타입의 4색 디지털 인쇄기다. 인쇄품질관리 및 2400dpi/350선에 이르는 고품질인쇄 구현, 친환경 무현상판, 일반잉크와 일반종이를 사용하고 있어 유지 및 운용에 추가로 드는 부담이 적다.

전문 제조업체 특유의 중량감을 갖고 고객을 대하는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는 화려하고 상큼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랜 시간 변함없는 존재처럼 믿을 수 있도록 든든함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